

# 설 성수품 공급 1.5배 확대...농축수산물 40~50% 할인

### 당장,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발표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15%로 인상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농·축·수산물 최대 40~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와 SRT 역귀성은 최대 40% 할인,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을 15%로 인상 등 명절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 중 관광·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와 더불어 대규모 차량 정체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가동하고,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2025년 설 명절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명절대책으로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성수품 물가 안정 ▲국내 관광 활성화 ▲민생 부담 경감 ▲24시간 안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일부 과일 및 농산물이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할인 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 판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과와 배 등 설 성수품 16가지 품목의 공급량을 1.5배 늘리고, 농·축·수산물을 기존 대비 40~5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등 전통적인 명절 선물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오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보다 5%포인트(p) 높은 15%로 인상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는 설 연휴 전날인 오

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시 오는 25일 토요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연휴 기간을 늘려, 가족·친구·연인 사이의 국내 여행을 늘리고, 얼어붙은 지역 소비를 해소해볼겠다는 방침이다.

매년 반복되는 귀성길 극심한 차량 정체 문제 완화를 위해 오는 28~30일 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또 오는 27일부터는 철도 교통편인 KTX와 SRT의 역귀성 차편도 최대 40% 할인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설 연휴를 기준으로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1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서민 정책 금융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보일러 교체 및 지원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 관리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도, 설 맞이 최대 50% 할인 기획전

### 예비비 1억 투입...농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 2400여개 상품

설을 맞아 전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설 명절 특별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소비 침체로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도민 민생안정을 위해 1억원의 예비비를 투입, 최대 50% 할인 기획전을 운영한다.

500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농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2400여개 상품을 녹색나눔, 남도장터, 직거래장터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한다.

온라인 행사의 경우 ▲전남 사회적경제 쇼핑몰 '녹색나눔' ▲남도장터 ▲우체국 쇼핑몰에서 오는

31일까지 매일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전 제품 40% 할인쿠폰을 받아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오프라인 행사는 ▲전남상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0개 기업 110개 제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점점은 15개 기업 50개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특별 할인행사 제품은 녹색나눔 누리집(greenanum.co.kr), 남도장터 누리집(jnmall.kr),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에서 구매하거나 전남상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화 주문이 가능하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도립 전남학숙 신규 입사생 163명 모집

### 2월13일까지 누리집·이메일 접수

2025년 도립 전남학숙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광주와 인근에 위치한 대학 재학생인 전남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모집 인원은 163명(남 91·여 72)이다. 오는 2월 13일까지 전남학숙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광주와 인접 사군 소재 대학의 신입·재학생(대학원생 포함)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생이다. 공고일(8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

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남학숙은 2인 1실의 생활실과 독서실, 멀티미디어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입사생은 월 11만 원의 생활비로 1일 3식의 식사와 하루 9차례 운행되는 통학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립 전남학숙(061-370-6242), 누리집(www.jnh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 비공개 적법 판단 2심 판결 파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시사회위헌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앞서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설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대통령기록관에게 해당 정보에 대해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와 이유, 비공개 사유 등을 통해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증명하게 하고, 중량이 충분하지 않아 적법성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 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고,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긍정한 판결"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자산매각공고

학교법인 서남학원 소유재산은 아래와 같이 일반경쟁 입찰매각공고 합니다.  
-아 래-

물건소재지	토지		건물		공고번호
	지번	지목	면적(㎡)	면적(㎡)	
1. 남원시 동중동 (남원별원)	344-2	대지	1,266	17개동, 주차시설	5,117.9 공고2025-1호
2.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아산캠파스)	105-14 외 39필지	임야 외	164,363	27개동	30,030.37 공고2025-2호
3. 나주시 남평읍 교리리 외 (구.광주예술대학)	38외28필지	전 외	22,106	3개동 샌드박스(무한)	9,835.7 공고2025-3호
계			187,735		44,983.97

2. 입찰방법 : 방문입찰에 한함  
3. 입찰공고기간 : 2025. 01. 10. ~ 2025. 02. 09.  
4. 입찰서 제출 마감 : 2025. 02. 10(월) 13:00 까지  
(\* 마감까지 투찰함에 투찰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임)  
※ 입찰서 제출 장소 :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사부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5. 개찰일시 : 2025. 02. 10(월) 13:00 후  
6. 개찰장소 :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사부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상기 세부 자세한 내용(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 현황도)은 학교법인 서남학원 홈페이지 http://www.seonamhw.co.kr를 참조 바라며, 현 상태 매각이므로, 매수인은 매각대상 번지 내 유치권, 지상권, 점유권 등(연원의 유무)을 물론, 이하 갈다인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찰하여야 하며 유치권, 지상권, 점유권 등은 이를 매수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2025. 01. 10.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  
주소 : (55039)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홍지서점앞)  
연락처 : Tel : (063) 288-8626, 8627 Fax : (063) 288-8628

## 자본감소공고

(채권자 이익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년 1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300,000,000원을 금 7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1주의 금액 10,000원 주식 7,000주에 대하여 임의 유상소각하기로 하여 발행주식총수 30,000주를 23,000주로 감소한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  
타이트 주식회사 (204611-0027095)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402번길 34 (송하동)  
대표이사 양요영

73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알 신 571-7658 • 오 지 266-7001  
• 동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투 225-8001 • 동 향 222-9054  
• 동 청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동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권 382-5788 • 상 명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전 376-7153  
• 지 평 376-6511 • 동 암 603-0311  
• 화 청 369-1625  
광산구 • 은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길어오른 73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先州日報** **이날**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